

건전재정을 확보하여 도서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자

국가정책분야에서 건전재정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균형잡힌 상태의 재정을 의미한다. 즉, 번만큼만 쓰기 때문에 빚도 저축도 없는 이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전재정이 이상적이면서도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정책의 기저에는 아무리 시급하거나 중요한 목적을 갖는 지출이라 하여도 반드시 소득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소득에 따라 중요한 혹은 시급한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소득에 맞추어야 함으로 소득이 예측가능할 때만이 합리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한편 도서관계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법칙가운데 하나로서 동서고급의 모든 도서관은 예산과 장서, 인력의 부족현상에 고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도서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러한 자원의 풍요함을 가져보지 못하고, 부족한 수익(혹은 지원예산)으로 최대한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덕분에 그나마 우리 도서관계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계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도서관 서비스를 자본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외부의 기준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투자대비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하는 추세를 의미한다. 모든 도서관이 갖는 딜레마이자 억울함은 여기

에서 표현하는 '이익의 극대화' 인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도서관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예산(자본)을 지원받고 이를 쪼개고 쪼개어 가능한 많은 사업과 서비스를 국민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상급기관에 확인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을 댄(?) 상급 기관이나 관청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자신들에 대한 칭찬이나 선거의 표와 같은 이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은 계량화할 수 있는 양적인 업무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화에 대한 2007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제공하였던 많은 노력들이 지금까지 구축한 DB건수와 시스템 보급건수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제공되었던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교육 등 실제적으로 계수하기 어려운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진 주제정보서비스는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의 생산적 역량으로 계수되지 않고 있다.

우리 도서관협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정이 대부분의 도서관과 같이 회원들의 회비나 국가 보조금과 같이 의존적 재정이다. 이러한 재정구조로는 최소한의 도서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



남 영 준
협회재정사업위원장
namyj@cau.ac.kr

다. 하나는 도서관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 협회의 내부 지출을 최소화하여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늘리면서, 내부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제안한 수익은 늘리고, 지출은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지출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성공은 누구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절약의 차원도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억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공이 확실한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지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도서관과 무관한 단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도서관협회에서 이를 책임지고 계획 성있게 위탁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다. 다만, 과연 그런 사업을 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망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관가에 우스개소리가운데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다. 가능한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최소한의 말은 역할만 수행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처신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괜한 사업을 수행하면, 기획에 따른 수고와 실패에 따른 문책이 성공 후의 성취감보다 우선하기 때

문에 중간만 하겠다는 자세이다.

도서관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기본 수익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예산은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서운(?) 돈이다. 그냥 일상화된 지출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정성을 날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로 도서관협회의 사업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나 도서관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협회 사업의 미숙한 운영을 탓하는 회원도 있고, 도서관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서관협회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질타는 도서관협회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협회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사업수행과 역할수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도서관협회는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의 주관 하에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이 재정확보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많은 시행착오 혹은 실패가 수반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계수화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업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인 협회 건물을 갖기 위해, 협회가 각종 협의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시간까지는 재정사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협회가 반드시 가야할 필수적 업무이다. 이와 같은 의지가 각오와 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회원의 관심과 애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